

학교 선택권 확대로 만족도 UP

도교육청, 5개 시군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적극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중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읍지역에 남녀공학 중학교가 없는 시·군 중학교가 주요 전환 추진 대상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17일 정읍을 시작으로 18일 고창, 23일 김제, 24일 부안, 26일 익산에서 해당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남녀공학 전환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로 했다.

공청회는 시군별로 90여 분간 진행되는데,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남녀공학 전환 찬·반 발표가 있는 뒤, 60분 동안 토론자 토의 및 참석자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와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에게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 하반기부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2020년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개정 및 「중학교 학교군·중학교 고시」를 개정하여 2021년에 남녀공학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은 중학교 선택기회 확대,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은 물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남녀공학은 단순히 좋다, 싫다는 선호의 문제가 아니

라 양성평등교육, 민주시민교육 실현, 보편적 교육 지향이라는 교육의 당위성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09개 중학교 남녀공학은 81.3%인 170교이며, 나머지 39개 중학교는 남자중 20교, 여자중 19교다. 이 가운데 남녀공학 전환 추진 대상 학교는 ▲정읍 동지역 6교 ▲김제 동지역 5교 ▲익산 읍지역 2교 ▲고창 읍지역 2교 ▲부안 읍지역 3교 등 5개 시군 18교다.

/장은성 기자



상관중학교는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과별 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조국’

상관중, 3·1운동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 수업 실시

상관중학교(문병기 교장)는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과별 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우리 역사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해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조국’이라는 주제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영어, 특수 등 11개 과목을 통합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 것. 프로젝트 수업은 2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수업에서는 ‘한반도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역사 수업을 시작으로 유관순 열사에 편지 쓰기 시화 그리기, 일제강점기 조선인 과학자 찾기, 3.1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 팸플릿 만들기, 태극기 작도하고 이해하기, 독도는 우리 땅 음악놀이 등의 발표수업과 조별활동이 이어졌다.

수업에 참여한 백성경 학생은 “역사 교과 뿐 아니라 여러 과목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3.1운동의 의미와 인물을 동시에 배움으로써 훨씬 쉽고 통합적으로 알게 되었다”며 “특히 마지막 미술수업에서 3.1 독립운동의 함성과 통일 열망, 하나된 조국의 기쁨을 퍼포먼스할 때 독립운동의 의미와 평화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끼며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문병기 교장은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역사적 자긍심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별 주제통합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그 날의 함성과 오늘을 이해하고 100년 후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 하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전북광역·전북여성새일하기센터(이윤애 센터장)는 16일 여성 취업 활성화 논의를 위해 하반기 새일센터 운영위원회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및 기업 중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재)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새일센터 사업운영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북광역·전북여성새일센터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에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를 목적으로, 상반기에 86개 기업 및 기관과 여성친화인증 협약을 했고, 기업환경 개선, 경력단절예방 심리노동고충 상담, 직장문화개선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이번 새일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기업현황 조사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수요조사 등 하반기 새일센터 주력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고, 경력단절 예방사업 확대 운영을 위해 여성생애설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 방안 마련 등 내년도 차별화 된 사업운영계획 수립에 단초를 마련했다.

이윤애 센터장은 “여성이 직업이 있어야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정신적 자립이 이뤄질 수 있다”며 “여성의 폭넓은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이번 운영위원회의 전문가 분들의 새일센터 사업운영 참신한 아이디어와 축적된 노하우 전수를 받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이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2019 미래 금융인을 위한 역량강화 캠프'를 개최한다.

“금융권 취업 이렇게 준비하세요”

도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대상 미래 금융인 위한 역량강화 캠프 열어

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2019 미래 금융인을 위한 역량강화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도내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1~2학년중 금융권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총 42명이 참여한다.

캠프는 첫날 한국은행 전북본부

견학하며 돈과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또 컬러 이미지메이킹 교육과 금융기관의 유형 및 자격증 안내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둘째 날에는 면접지도와 특성화고 출신 선배 금융인과의 만남이 준비돼 있다.

각각 군산여상·남원제일고·전주상

업정보·완산여고를 졸업하고 현재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농협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4명의 선배가 참여해 금융권 취업 노하우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융과 관련된 지식을 익히고, 예비 금융인으로서의 마운드를 함양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선배 금융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 22~23일에는 농업계, 27~28일에는 공업계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 커리어 관리 포럼 성료

원광대학교(총장 박병수) SW중심대학사업단은 하계방학을 이용해 SW인들을 위한 커리어 관리 포럼을 개최했다.

전국 오픈핵 대회와 연계해 최근 진행된 이번 포럼은 대내외 홍보를 통해 재학생과 게임 관련 고등학교 학생, 시민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 구글 소프트웨어엔지니어, Zepi

software엔지니어, 펄피(배틀그라운드) 플랫폼 엔지니어를 비롯해 작년 전국 오픈핵 대회 우승자들이 함께했다.

포럼은 1부 '개발자와 SW 이야기', 2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과 개발자 진로'를 주제로 열린 가운데 1부에서는 실리콘밸리와 스타트업 기업 문화 이해, 웹사이트 얼굴을 만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취직이직, SW전공 학

생의 프로젝트 등을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2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해서 세계 TOP 대학원 합격하기, 취준생이 고민해야 할 사항들,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전국 해커톤 대회 참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SW 관련 기업의 이해와 경력관리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된 것으로 평가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위해 머리 맞댄다

내일 도교육청서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전북지역 포럼 개최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전북지역 포럼이 내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추진했던 마을교육공동체의 성과와 한계를 교육청, 지자체, 교육 주체들이 공유하고,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대안적인 마을교육공동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 마련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과 전국시도교

육감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참석하여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전국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농산촌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과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전북지역에서는 2018년 10월 김희수 도의원이 발의하고 제정한 전북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기반하여 전북지역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